

# 목주기도의 모후 2023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10 월을 시작할 때면 목주기도의 모후 축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축일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입니다. 우리가 목주기도의 모후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수도회 관구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보호 아래에서 수녀회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도전들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가 꺾입니다. 매일 우리가 마스크와 사회관계망 안에서 사회의 중대한 문제들과 연관된 소식과 사건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 기후 변화, 가난... 우리가 하느님 현존의 표지들을 보려고 애써도 우리는 그 반대되는 부정적인 표지들을 보게 되고, 하느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믿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목주기도의 모후 축일 제정의 계기가 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1571 년 10 월 7 일의 레판토 해전이었습니다.

지중해에서 역사상 최대의 해전이 발발했을 때, 로마에서는 수천 명의 신자들이 교황 비오 5 세와 함께 목주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전투는 아침 일찍부터 밤중까지 계속되었고, 그 다음날 교황은 광장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모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승리를 기념하여 비오 5 세는 승리의 성모 축일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전례적으로 기념하게 했고, 그의 후임자인 그레고리오 13 세는 그 이름을 목주기도의 성모 축일로 변경했습니다.

목주기도의 성모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는 승리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전투들에서도 성모상과 함께 또는 그분의 보호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인정된 성모 발현들에서 성모님은 언제나 목주를 지니고 계셨고, 이로써 목주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모든 시대에, 연대와 정의와 봉사와 사랑의 세상과 함께 폭력과 억압과 기만과 이기심의 세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성모님의 도우심을 보장해 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결코 자녀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격동적이었던 시대들에도, 목주기도를 통한 성모님의 현존은 언제나 계속해서 믿고, 희망하고, 갈망하고, 모든 것에서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싸우기 위한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성모님은 자신의 몸 안에서도 고통을 사셨습니다. 아드님이신 주님이 구유에서, 적당한 옷도 없이 태어나셨을 때, 아들이 그러한 비참을 겪는 것을 보는 것보다 어머니에게 더 잔인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드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볼 때, 영혼 밑바닥에까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좌절하지 않으셨고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간직하고 마음 속에 새기셨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관점에서 되새기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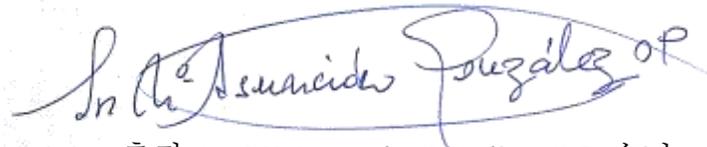
성모님은 우리가 삶 안에서 견뎌야 하는 어려움과 고통들을 매우 잘 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도전들도 아십니다. 그러니 힘과 용기를 가지고 견디기 위하여 성모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저는 묵주기도가 성모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관상하는 것이기에 부인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묵주기도를 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성소와 사명을 굳건하게 해 줍니다. 묵주기도는 우리가 묵상하는 모든 신비들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 사랑의 위대하심을 보게 해 줍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믿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보여 주셨으며,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증해 주십니다.

레판토 해전에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황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공동체와 가정에서 믿는 이들의 모임으로서 기도하는 것은 이 귀중한 기도의 힘을 더해 준다고 믿습니다. 이 신심은 전파할 가치가 있습니다.

묵주기도의 성모님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순례 때에 우리를 도와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복음의 선포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청합시다.

기쁜 축일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포옹과 기도를 보냅니다.



총장 Sor M<sup>re</sup> Asunción González, O.P. 수녀